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20일 소록도를 방문, 이불과 김장김치 등을 선물한데 이어 녹색리식당에서 소록도 주민들에게 일일이 팔죽을 배식한 후 함께 공양했다.

소록도 가가호호 웃음꽃 '활짝'

동지(冬至)는 붉은 팔죽을 이웃과 함께 나눠 먹음으로써 귀신을 쫓아내고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동지를 맞아 지난 20일 고흥 소록도를 찾아 한센병 환자들에게 동지팔죽과 김장김치, 이불 등을 보시하며 무병장수를 기원했다.

지난 5월 '조계종 총무원장'으로서 소록도를 처음 방문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소록도 내 총 10개의 종교시설 가운데 사찰이 단 한 곳도 없다는 현실에 미안함을 표하며 "나부터 소록도를 다시 찾아와 자원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한 약속을 7개월 만에 지켰다. 특히 소록도 방문 당시 주민들이 동지에 팔죽을 먹고 싶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총무원장 스님은 이날 40여 명의 광주 무각사 자비봉사단(단장 박인자)이 마련한 600인분의 동지팔죽과 김장김치, 아름다운동행이 준비한 겨울이불 450채를 갖고 소록도를 다시 찾았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박형철 병원장 등 국립소록도병원 의료진과의 차담에 이어 물품 전달식을 가진 뒤, 녹색리식당으로 이동해 본격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무각사 자비봉사단이 준비한 동지팔죽을 배식한 뒤 주민들과 점심공양을 함께 하며 웃음꽃

총무원장 자승스님

자원봉사 약속지켜

한센병 환자들에게

동지팔죽 김장김치

이불 등 보시하며

무병장수 '기원'

을 피웠다. 또한 점심공양 후에는 녹색리마을을 가가호호 방문해 팔죽과 김장김치, 이불 등을 선물하며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나길 기원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동지팔죽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라며 소록도 주민들을 격려했다. 녹색리마을 주민 김명환 씨는 "눈이 안보여 제대로 인사도 못해 미안하고 정말 고맙다"면서 거듭 감사인사를 전했다.

지난 5월 총무원장 스님의 소록도 방문으로 맺어진 소록도와 불교와

의 인연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무각사 자비봉사단은 지난 8월 삼계탕 공양을 한 이래, 매 분기별로 소록도를 찾아 자원봉사를 전개하고 있다. 지난 10월 첫 봉사활동을 진행한 중앙승가대 니르바나자원봉사단도 정례적으로 소록도를 찾을 예정이다.

오는 2012년 2월에는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로 소록도 주민 50여 명을 초청해 1박2일간 사찰문화 체험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5월 소록도 첫 방문 때 범당을 짓기 보다는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전개하는 게 낫다는 판단했다"면서 "앞으로 지역불교계가 책임있게 자원봉사를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자원봉사에는 조계종립 송광사 주지 영조스님과 사회부장 혜경스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종선스님,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해일스님, 지용현 광주전남불교신도회장 등이 동참했다. 고흥=박인택 기자 parkintak@bulgyo.com

社告

팟캐스트 재능기부자 모집

최첨단 모바일 환경을 선도해가는 불교신문이 '팟캐스트(podcast)' 서비스를 함께 만들어갈 재능기부자(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팟캐스트는 라디오 방송 형식의 온라인 프로그램입니다. 불교신문 팟캐스트 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불교신문의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재능을 기부하실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모집 마감 : 2011년 12월31일

○모집 대상

①음성녹음 00명 - 본지 기사 및 연재물을 자신의 목소리로 녹음.

②제작편집 00명 - 동영상 및 음성 원본을 팟캐스트 서비스에 맞게 편집.

○지원 자격 : 인터넷 및 모바일 분야에 관심 있는 누구나.

○지원 방법 : 지원서를 작성해 본지 이메일(webmaster@bulgyo.com)로 제출. 지원서는 인터넷 불교신문(www.ibulgyo.com)의 배너 '팟캐스트 재능기부자 모집'에서 다운로드.

○결과 발표 : 2012년 1월11일 본지 2882호 및 인터넷 불교신문

“北 급변 가능성 낮다...불교역할 기대”

김용현 동국대 교수, 김정일 위원장 사후 '전망'

북한 최고 권력자 김정일 국방위원장(1942~2011·사진)이 지난 17일 사망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9일 오후 8시30분 과로로 열차에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조선 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원인은 '갑상선 정신육체적 과로'로 알려졌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등도 5개 기관 명의로 발표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고향'이라는 보도문을 통해 "현지지도의 길에서 급병으로 서



거하시었다"고 밝히며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일부에서는 북한의 불확실성을 내세우며 북한 급변사태나 북한 내부의 권력 투쟁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권력승계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내부동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으며 급변 사태의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이어 김 교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이 당분간 수동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내부 체제 결속이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앞으로도 불교계가 인도적 지원이나, 종교적 지원 등에 나서 어려운 남북관계 속에서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9편
염태규 기자 che11@bulgyo.com

“강남포교 활성화 구심점 마련됐다”

강남지역 35곳 사찰

사암연합회 창립

회장 정우스님 선출

조계종이 수도권 포교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불교세가 취약한 강남지역 불교포교와 조계종 사찰의 교류 및 유대 강화를 위해 지역 사찰들이 힘을 모았다.

조계종 강남지역 사암연합회(회장 정우스님·사진)는 지난 16일 서울 구룡사 만불보전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조계종 사찰의 위상 강화와 포교 활성화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강남지역 사암연합회 출범으로 집계되어 있던 강남지역 포교와 조계종이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포교가 더욱 활기를 띠 전망이다.

공식 출범한 조계종 강남지역 사암연합회는 지역 사찰의 발전과 조계종 스님들의 교류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준비모임을 갖고 창립을 준비해왔다. 지역 사찰 주지 스님들을 중심으로 불교 포교를 위한 사암연합회 창립의 뜻을 모았고 이후 6개월 만에 사암연합회가 창립되는 결실을 거뒀다. 현재 강남지역 사암연합회에는 강남구 4곳, 서초구 18곳, 송파구 5곳, 강동구 8곳 등 총 35곳의 사찰이 회원 사찰로 동참하고 있다. 향후 주요 사업으로는 △강남지역 사찰의 연대와 협력 도모 △수도권 포교 활성화를 통한 불교 중흥 △지역사회 통합과 발전 등을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창립총회에서는 사암연합회 교문에 서울 금강선원 선원장 허가스님을, 회장에 서울 구룡사 회주 정우스님을 각각 추대했다. 이와 함께 지흥스님(서울 불광사 회주), 진화스님(서울 봉은사 주지), 법안스님(서울 대성사 주지), 덕천스님(서울 동명불원), 지우스님(서울 비구니회관 범룡사 주지)을 부회장으로 추대했다.

이날 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추

대된 정우스님은 "강남 지역은 종교교포가 개신교, 가톨릭, 불교 순으로 불교세가 약한 지역으로 지역 사찰들이 진심으로 원력을 세우고 힘을 모아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 부처님의 전도선언을 실천해 목으로 삼아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창립총회에 참가한 사부대중 300여 명은 "정법의 가치를 높이 들고 전법과 교화에 세바람을 불어넣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불교, 시대의 빛이 되는 불교가 될 것"을 부처님 전에 서원했다.

염태규 기자 che11@bulgyo.com



‘평화...’

지난 19일 서울 중랑동 주한일본대사관 앞 '일본군 위안부 평화비' 모습. 한 겨울 추위에 '덜고있는' 소녀에게 시민들이 모자와 목도리로 감싸주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이 문제는 인식을 달리하면 당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법 이전에 국민정서의 문제"라며 일본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향일암 임진년 해맞이 철야기도

남해 제일 관음기도 도량 향일암에서
힘차고 찬란하게 솟아오르는 새 해를 보며
당신의 간절한 소원을 빌어보십시오.
반드시 이뤄질 것입니다.



복원된 대웅전 법당.

·일 시_ 2011년 12월 31일 오후 6시 ~ 2012년 1월 1일 오전 6시
·장 소_ 향일암 대웅전, 관음원 ·동참비_ 10,000원 ·문의_ 061)644-4742

서울 봉천회 02-387-8578(12월 31일 오전 7시 조계사앞 출발 일정) 부산금강정진회 051-635-7878

대한불교조계종 남해제일관음기도도량 금오산 향일암
주지 원문 합장

www.hyangiram.org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울리 산7번지
향일암 관음성지 복원불사 ARS
060-800-0108
한 통화에 3,000원 보시금이 전달됩니다.